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시: 2022. 12. 28.(수) 10:00

2. 장소: 본관 1층 대회의실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12	박영미*, 임동훈**, 정혜중, 김세완, 김재욱, 정연화, 류태경, 황진선, 남상택, 이정화, 오숙환, 김정권	고민희(간사)
불참인원	0		

* 의장 **부의장

4. 안건

- 제1호의안: 2022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3학년도 예산안 자문
- 제2호의안: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5. 개회선언

- 가. 의장은 제7기 대학평의원회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대학평의원회 운영 세칙 제 2조에 따라 이번 회의는 12월 정기회임을 안내하다. 이어 2022.9.1.자로 김재욱, 정연화 직원 평의원이 보궐 평의원으로 위촉되었음을 알리다.
- 나. 의장은 평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보고한 후 개회를 선언하다.
- 다. 평의원들에게 전 회의록을 배부하고, 참고하도록 안내하다.

6. 안건 심의 및 논의

가. 심의사항

- 제1호의안: 2022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3학년도 예산안 자문

- (1) 의장은 2022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3학년도 예산안 자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화의료원, 학교 순서로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하다. 안건 설명을 위해 이화의료원 및 본 교 기획처에서 배석해 주셨음을 알리고, 배석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의료원 배석자: 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 부분부장, 목동병원 재무팀장, 전략기획팀 예산파트장)

- (2) 전략기획본부장은 의료원 병상 운영 및 외래·입원 환자수, 예산 대비 진료수입 현황 등을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보고하고, 예산 산정 방식을 설명하다.
- (3) 김세완 평의원은 서울병원의 경우 제시된 병상수의 실제 사용율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다.
- (4) 전략기획본부장은 코로나 거점전담 171병상을 제외한 706병상에 대한 병상 가동율은 주요 비교 병원의 평균에 해당한다고 답하다.
- (5) 정혜중 평의원은 계획한 목표 대비 실적이 얼마나 개선된 것인지 질의하다.
- (6) 전략기획본부장은 추경예산안과 본예산안의 평균을 기준으로 2~3% 개선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하고, 의료 분야 특성상 비용을 먼저 책정 후 예산을 산정하게 되는데 작년부터 예산 목표를 달성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서울병원의 선전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임을 설명하다.
- (7) 황진선 평의원은 진료수입이 환자가 내는 금액의 총 수입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하고, 코로나19 종료 이후 수익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하다.
- (8) 전략기획본부장은 수가에 따른 일반적인 진료수입은 의료수익에 해당하며,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코로나 손실 보상금은 의료외수익으로 이번 본예산 의료외수익에 감액분을 반영하였다고 설명하다.
- (9) 류태경 평의원은 올해 초 등록금심위원회에서 의료원 결산 보고 시 2023학년도부터 전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예산에 반영된 것인지 질의하다.
- (10) 전략기획본부장은 매달 전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목동병원 총 118억 원, 서울병원 총 75억 원의 전출금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답하다.
- (11) 전략기획 부분부장은 2022학년도 의료원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고하다.
- (12) 김재욱 평의원은 인건비 증가와 관련하여 급여 인상 기준을 질의하다.
- (13) 전략기획 부분부장은 인건비가 2.37% 인상되어 목동병원 25억 원, 서울병원 34억 원이 증가되었다고 설명하다. 이어 전략기획본부장은 코로나 거점전담병원으로서 인력을 추가 채용하였고, 의사 및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하였다고 부연하다.
- (14) 김정권 평의원은 목동병원과 서울병원의 인건비 구성비 차이에 대한 이유를 질의하다.
- (15) 전략기획 부분부장은 서울병원의 인건비 비율이 더 낮은 이유는 서울병원의 경우 신규로 오픈하였기 때문에 경력직 직원수가 목동병원 대비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내년에는 구성비가 높아질 예정이라고 부연하다.

- (16) 김정권 평의원은 인건비 비중과 관련하여 타병원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질의하다.
- (17) 전략기획본부장은 우리 병원의 인건비 비중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타병원 대비 조금 높은 편이라고 답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의료수익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병원의 경우 인력 집약적 사업으로 병상이 확대되면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이므로 내년 서울병원의 병상을 확대하고 안정화되면 수익이 높아지고, 인건비 비중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다.
- (18) 황진선 평의원은 목동병원 인건비 중 수당이 증가한 이유를 질의하다.
- (19) 전략기획본부장은 수당의 경우 양 병원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답하다. 전반적으로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당 80시간 제한의 전공의특별법 등의 시행으로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입원전담의를 비롯한 대체 인력 운영 및 펠로우 당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답하다.
- (20) 황진선 평의원은 서울병원의 경우 수당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21) 전략기획본부장은 서울병원은 현재 인력을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이 있다고 답하다.
- (22) 황진선 평의원은 관리운영비 중 목동병원과 서울병원의 환자피복및침구비에서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23) 전략기획본부장은 병원의 규모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용하는 피복이 다르고, 폐기되고 신규로 구입하는 양이 다르므로 양 병원이 동일할 수 없다고 설명하다.
- (24) 임동훈 평의원은 서울병원의 은행 차입 원금 125.7억 원, 이자 214억 원, 총 340억 원은 서울병원 예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질의하다.
- (25) 전략기획본부장은 내년에 의료원 전체가 갚아야 할 차입금은 금리 및 가산금리를 감안하여 71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하다. 의료원은 차입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켜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으므로 여러가지 특화된 플랜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한다. 서울병원의 경우 일반병상 확대, 혈관병원 개원 준비, 중증응급의료센터, NICU 활성화, 목동병원의 경우 전국 최초 비뇨기병원 개원 등 성장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하다. 또한 내년부터 전출금 193억 원도 예산에 반영한 상태라고 설명하다.
- (26) 김세완 평의원은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시중금리가 높아질 경우에도 현재 수입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급이 가능한 수준인지, 어디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 질의하다.

- (27) 전략기획본부장은 전출금의 경우 학교와 상의하여 매달 보내는 것으로 약속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지급할 것이라고 답하다. 이어 의료원에서는 2023~2024년을 의료원이 자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고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병상을 확대하고, 의료수익을 창출해 내고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하다.
- (28) 정연화 평의원은 서울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진입 계획에 대해 질의하다.
- (29) 전략기획본부장은 2026년 6기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하다. 다만, 정부에서 진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고, 응급의료체계도 바뀔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위한 점수체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하다.
- (30) 황진선 평의원은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진입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다.
- (31) 전략기획본부장은 전공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여 병원에 배정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서울병원은 전공의 수급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입원전담의 체제로 운영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답하다.
- (32) 정혜중 평의원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원의 계획을 질의하다.
- (33) 전략기획본부장은 서울병원이 중점적으로 주력해야 하는 전략이 '특화'이며, 이를 위해 내년 서울병원의 1차 목표는 국내 최초 혈관병원을 개원하는 것이라고 답하다. 목동병원의 경우에도 비뇨기병원, 여성암병원 등 특성화 병원이 환자를 유입하고 진료비를 상승시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 (34) 전략기획 부분부장은 2023학년도 의료원 본예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가로 보고하다.
- (35) 김재욱 평의원은 관리운영비가 총 50억 증가, 이 중 복리후생비가 5억 증가한 것에 대한 세부 내용과 수선비 중 전력설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36) 전략기획 부분부장은 복리후생비의 경우 노사협약에 따른 야간근무자 대상 직원 식대 지원 부분임을 설명하고, 전력설비 예산은 목동병원 중환자실의 전력설비 수리 필요에 따른 예산 편성임을 설명하다.
- (37) 류태경 평의원은 2022학년도 추경예산안의 기부금수익이 43.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약 4배 증가하였고 2023학년도 본예산의 기부금수익을 31.6억 원으로 산정한 것과 관련하여 2022학년도 본예산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지적하고, 기부금 예산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다.
- (38) 전략기획본부장은 기부금 예산의 경우 정확한 예측이 불가하다고 말하고, 2022학년도에 서울의과학연구소에서 COVID 19 연구기금으로 30억 원을 기부하여 추경에 반영된 것이라고 답하다. 또한 목동병원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라 개선 건축 공사를 준비 중에 있어 적극적인 기부금 모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2023학년도 기부금 예산안 산정 시 반영하였다고 설명하다.

- (39) 남상택 평의원은 교원 인건비와 일반직 인건비 증감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서울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없어 교원의 업무 과중, 의료사고 발생 우려 등에 대한 염려의 의견을 전하다.
- (40) 전략기획본부장은 의료원에서도 구조적 해결 방법 모색을 위해 전공의를 대신할 수 있는 입원전담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하다. 다만, 입원전담의의 경우에도 채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충원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전하다. 또한 병원 내 안전관리부를 발족하여 사고 대처에 대한 의료원의 역량이 강화되었음을 설명하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다.
- (41) 김정권 평의원은 특성화 병원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홍보 활동이 연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홍보 예산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는지 질의하다.
- (42) 전략기획 부분부장은 홍보비는 관리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홍보팀에서 책정한 예산을 삭감 없이 모두 반영하였다고 답하다. 이어 전략기획본부장은 전략기획본부 산하에 홍보팀이 있고, 특성화 병원 전략에 맞춘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부연하다.
- (43) 김세완 평의원은 인건비 중 교원 전출금은 본교 소속 교원에 대한 것인지 질의하다.
- (44) 전략기획본부장은 목동병원 소속 교원 전출금 118억 원, 서울병원 소속 교원 전출금 75억 원이라고 답하다
- (45) 의장은 의료원의 2022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3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묻고, 더 이상의 질문이 없어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을 종료하다.

(배석자: 기획처장, 기획처부처장(예산), 예산팀장)

- (46) 기획처장은 이화여자대학교 2022학년도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항을 보고하다.
- (47) 김정권 평의원은 기금 잔액 6,049억 원의 구성과 수익성에 대해 질의하다.
- (48) 기획처장은 현재 50%를 상회하여 안전자산인 예금에 투자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하고, OCIO의 경우 일부가 안전자산에 투자되고 있으므로 60% 이상이 안전자산에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다. 올해 1% 대의 예금이자 수익을 얻었고, 주식 및 채권에서는 수익을 얻지 못하였으나, 예금이자와 주식 및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내년 수입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다.
- (49) 기획처장은 이화여자대학교 2023학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항을 보고하다.
- (50) 황진선 평의원은 입학금이 등록금 수입에 포함되어 있는데 학부 입학금이 폐지되었으므로 2023학년도 등록금 예산을 보수적으로 책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51) 기획처장은 학부 입학금은 5년에 걸쳐 20%씩 줄여왔고, 내년부터는 입학금이 신입생 등록금에 산입하는 형태가 되므로 입학금 폐지로 인한 예산 수입 감소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다.
- (52) 김정권 평의원은 반도체 학과 등 신설에 따라 등록금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 교원 채용 계획이 있는지, 학과 신설에 따른 예상 추가 비용에 대하여 질의하다.
- (53) 기획처장은 대학원의 경우 전자전기공학과 및 물리학과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반도체 학과가 신설될 예정이며 학부 학과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답하고, 반도체 관련 분야는 참여 교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설명하다. 추가적인 시설 및 설비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교육부 승인 후 참여 학과와 함께 구체화할 예정이며, 반도체 분야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첨단 신기술 분야로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학문 분야이므로 교비 재원과 더불어 국고 및 기업의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하다.
- (54) 김정권 평의원은 전기,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내년에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인지 질의하다.
- (55) 기획처장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타 대학과의 공조를 통해 정부에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할 예정임을 전하다.
- (56) 김재욱 평의원은 코로나19로 그동안 에너지를 적게 사용했던 측면이 있었고, 현재 에너지 관련 전담 인력이 없어서 이러한 상황이 생긴 것은 아닌지 지적하다. 이어 ESG 선도 대학으로서 에너지 효율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하다.
- (57) 기획처장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학교 차원의 적극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하다.
- (58) 김재욱 평의원은 학관 공사비 예산이 104억 원인데 건축기금 세부사항에 7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기금 이외에 다른 비용이 투입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59) 예산팀장은 목동의학관 매각 대금에 대해서 병원으로부터 2023학년도에 받을 금액인 약 32억 원을 당해연도 건축비에 충당하고 있다고 답하고, 학관 공사비 예산은 해당 재원과 기금인출 재원이 합해진 예산임을 설명하다.
- (60) 의장은 병원으로부터 전입이 되는 상황에서도 기금 인출 규모가 크게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61) 기획처장은 가장 큰 요인은 건축비라고 답하고, 내년에도 건축비로 126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나 건축비 중 일부는 기금 인출을 하지 않고 타 재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다. 그 밖에도 학교가 연구학생 경비에 적극 투자하는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부연하다.

- (62) 의장은 생활환경관 및 헬렌관에 대한 건축기금 10억 원 인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알려진 바가 없음을 지적하다.
- (63) 기획처장은 EWC 등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위원회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설계를 위한 준비 및 의사결정 단계로 아직 구성원들에게 보고하기에는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하다. 2월에 있을 각 구성원 대상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하다.
- (64) 의장은 학교의 2022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3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묻고, 더 이상의 질문이 없어 자문을 종료하다.

□ 제2호의안: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배석자: 기획처장, 기획팀장)

- (1) 의장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다. 안건 설명을 위해 기획처장이 계속해서 배석해 주실 예정임을 알리고, 간사에게 안건 설명을 요청하다.
- (2) 간사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① 2024학년도 학부 및 편제 조정 사항(디자인학부 전공 분리 및 신설, 엘텍공과대학 소프트웨어학부 소속변경 및 정원 조정, Post-PRIME 엘텍공과대학 편제 및 정원 조정) 반영, ② 2023학년도 AI융합학부가 인공지능대학으로 개편됨에 따른 AI융합학부 관련 사항 삭제 및 인공지능대학 신설 내용 반영, ③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입학금 등 납부 의무를 정한 조문 제목 개정, ④ 재학연한만료 제적생 중 과정수료 이후 제적생 학생에 대한 졸업기회 부여 제도 신설, ⑤ 스크랜튼대학 국제학부의 학사학위명을 문학사에서 국제학사로 변경하는 안임을 설명하다.
- (3) 기획처장은 ① 2024학년도 학부 및 편제 조정사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부연하다. 조형예술대학 디자인학부는 기존 4개 전공 운영에서 2017학년도 모집단위 광역화를 통한 우수학생 선발을 위해 디자인학부 통합선발로 변경하였으나, 학생 취업 및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서는 구체화된 소속 전공이 표시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요구가 있어 다시 4개의 전공으로 분리·신설을 요청한 건임을 설명하다. 다만, 디자인학부 통합선발은 유지하고, 1학년 말 학생 선택에 따라 전공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공동교과목을 개설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부담은 줄이는 안으로 편제조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안내하다.

두 번째 편제 및 정원 조정안은 2023학년도에 인공지능학과와 데이터사이언스학과로 구성된 인공지능대학이 설립·운영될 예정이며, 2024학년도부터 엘텍공과대학의 편제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인공지능 분야와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소프트웨어학부(컴퓨터공학전공, 사이버보안전공)의 소속을 인공지능대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건임을 설명하다.

세 번째는 Post-PRIME 엘텍공과대학 편제 및 정원 조정 건으로 단과대학 명칭 변경, 기존 학부제의 학과제 전환, 학과별 정원조정이 주요 내용임을 설명하다. 공과대학으로의 단과대학 명칭 변경은 소속 교원 전원이 동의하였고, 기존 학부제에서도 각 전공이 개별 학과처럼 운영되었기 때문에 학과제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다고 부연하다. 각 학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엘텍공과대학에서 학과별 정원 조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휴먼기계 바이오공학부에서는 정원 조정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정원을 감축시킬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별도로 전달하였음을 알리다. 기획처장은 휴먼기계 바이오공학부 소속 교원 면담 내용을 반영하여 이번 2024학년도 정원 조정 이후 PRIME 과 관련한 추가 정원 조정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Post-PRIME 엘텍공과대학 편제 및 정원 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다.

- (4) 의장은 편제 및 정원 조정사항은 대학평의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인 만큼 평의원들이 학교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하다. 회의 시작 전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소속 교원들이 별도 문건으로 의견을 전달하였고, 평의원들이 동의하면 이를 공유하겠다고 하였으나 동의 의견이 없어 다시 회의를 속개하다.
- (5) 김정권 평의원은 디자인학부의 세부전공이 다시 신설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는지 질의하다.
- (6) 기획처장은 디자인학부에서 지속적으로 전공 분리·신설을 요구해왔고, 전공이 표시되는 것이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통합선발은 유지하되 1학년 말 전공을 결정하고 공동교과목을 운영하도록 학교 차원에서 제안하였다고 답하다.
- (7) 정연화 평의원은 학생 자율 선택에 따라 전공결정을 할 경우 소수 전공에 대한 유지 지원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다.
- (8) 기획처장은 수시전형을 통해 전공별 선발을 할 수 있겠으나 이는 입학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하다.
- (9) 오숙환 평의원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소속 교원들과 잘 조율이 된 것인지 질의하다.
- (10) 기획처장은 디자인학부와 2년 동안 논의하여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고 답하다.
- (11) 임동훈 평의원은 인공지능대학 아래 인공지능학과가 있어 해당 학과가 대표 학과로 보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다른 학과들과의 체계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전하다.

- (12) 기획처장은 명칭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단과대학 또는 학과 명칭 중 하나에 ‘융합’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도 고려하였으나, 본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다.
- (13) 임동훈 평의원은 엘텍공과대학을 공과대학으로 바꾼다면 다른 조항에도 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을 요청하고, ‘호크마(HOKMA)교양대학’에 영문 표기를 병기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다.
- (14) 기획처장은 2024학년도에 공과대학으로 변경이 되므로 해당 학년도에 맞춰 다른 조문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답하고, 호크마교양대학의 영문 표기 병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말하다.
- (15) 류태경 평의원은 엘텍공과대학의 소프트웨어학부가 인공지능대학으로 소속이 변경되면 2024학년도 이전 입학년도 소속이 변경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16) 기획처장은 모든 재적생이 동의하는 경우 일괄 전환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원 소속을 유지한다고 답하고, 기획팀장은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졸업 전 1회에 한하여 소속변경이 가능하다고 부연하다.
- (17) 류태경 평의원은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 학생자치 입장에서 대표자를 뽑을 때 유권자가 달라지는 등 혼란의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다.
- (18) 기획처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 해당 학생대표와 추후 의논하겠다고 답하다.
- (19) 황진선 평의원은 입학금 등 납부 의무를 정한 조문의 제목을 ‘등록금’으로 개정하는 안에 대하여 등록금에 관한 기존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20) 기획처장은 19조의 경우 최초 등록에 대한 조항이므로 입학금이 없어지더라도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남겨놔야 한다고 설명하다.
- (21) 김정권 평의원은 19조의 조문 제목이 ‘등록금’인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입생 등록금’ 등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하다.
- (22) 기획처장은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자구 수정을 검토한 후 수정 사항을 보고하겠다고 말하고, 전체 평의원이 이에 동의하다.
- (23) 김재욱 평의원은 소프트웨어학부의 단과대학 소속변경과 관련하여 컴퓨터공학전공 및 사이버보안전공의 연구실, 강의실 등은 공학관에 위치해 있고, 인공지능대학 행정실은 ECC에 있어 교수 및 학생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고, 행정실도 이원화될 경우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을 전하다.
- (24) 기획처장은 2024학년도에 편제가 조정되고, 공간은 2027학년도에 EWC 완공과 함께 이전이 될 예정이라고 말하고, 공간 확정 전까지는 기존의 학생, 교수 공간을 기준으로 효율적 운영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하다.

- (25) 정연화 평의원은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가 두 번에 걸쳐 정원 감축이 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 (26) 기획처장은 PRIME 사업과 함께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가 110명으로 시작하였고, 당시에는 3~5개의 전공을 두기 위한 학부로 신설이 되었으나, 전공을 신설하지 못하고 한 개 학부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다. 한 개의 학과로서는 110명의 정원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 약학대학 학제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시 37명 감축이 되었고, 이번 Post-PRIME 엘텍공과대학 편제 및 정원 조정 방안으로 7명 추가 감축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다.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의 정원이 많이 감축되었으나 학교 차원에서는 적정 규모로 판단된다고 답하다.
- (27) 의장은 이번 정원 조정안으로 식품생명공학과 2명, 건축학과 1명,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 3명, 환경공학과 1명의 정원이 증가하고, 휴먼기계바이오공학과의 정원이 7명 감소하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하다.
- (28) 간사는 대학원 학칙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① 2023학년도 후기 전문·특수대학원 편제 및 정원 조정 사항 반영, ② 경영전문대학원 학위종별 변동사항 반영, ③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항번호 변경 반영 건임을 보고하다.
- (29) 기획처장은 대학원 편제 및 정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매년 각 대학원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충원을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있음을 부연 설명하다.
- (30) 황진선 평의원은 임상치의학대학원 임상치의학과 임상소아치과전공의 경우 2명의 재학생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전공 교수의 부재로 폐지하는 것을 지적하다.
- (31) 기획처장은 재학생들의 졸업까지는 전공을 운영하는 것이고, 2023학년도 후기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는 의미라고 답하다.
- (32) 황진선 평의원은 경영전문대학원의 경우 학위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하다.
- (33) 기획팀장은 경영전문대학원의 경우 학과는 경영학과 1개이나, 트랙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트랙에 해당하는 학위종으로 졸업이 되는 것이라고 답하다.
- (34) 김재욱 평의원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에 해당 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충원율이 높은 것은 아닌지, 중도탈락율은 높지 않는지를 질의하다.
- (35) 기획처장은 일반대학원은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과정이고, 특수대학원은 재직자 재교육을 위해 논문 없이 야간 및 주말로 운영하는 과정으로 학생 수요와 교육과정이 다르므로 중복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하다.
- (36) 의장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에 대한 가부 의견을 묻고 참석 평의원 중 과반이 동의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다.

나. 기타사항

- (1) 의장은 제7기 대학평의원회의 임기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됨을 안내하고, 1년(학생) 또는 2년의 임기 동안 학교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평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다.
- (2) 2023년 1월 1일자로 제8기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될 예정으로 차기 회의는 위촉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임을 안내하다.

7. 폐회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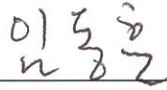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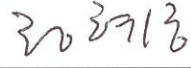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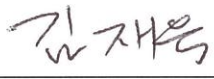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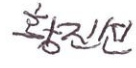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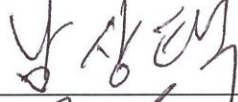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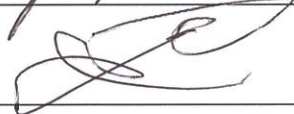
의장은 안건 심의 종료를 알리고 폐회 선언하다.

2022년 12월 28일

의 장 박 영 미  (인)

대학평의원회 2022년 제5차 회의

일시	2022. 12. 28.(수) 10:00	장소	본관 대회의실
----	------------------------	----	---------

구분	성명	서명
교수 평의원	박영미	
교수 평의원	임동훈	
교수 평의원	정혜중	
교수 평의원	김세완	
직원 평의원	김재욱	
직원 평의원	정연화	
학생 평의원	류태경	
학생 평의원	황진선	
동창 평의원	남상택	
동창 평의원	이정화	
대학발전 평의원	오숙환	
대학발전 평의원	김정권	